

2025.02.22. | 종묘 14기 김홍렬

# 세계유산 종묘



金弘烈

I. 관람객이 만나는 중요

II. 해설사가 말하는 중요

III. 연구자가 찾아본 중요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 종모 김홍렬 일기장.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너무 더운날!

궁묘의 시간은 멈춘적이 없었다!

해설 또한 일제강점기를 넘어선 이야기 또한 듣기 힘들었다.

궁궐길라잡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 가야할 일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가까운 시간 속에서의  
흔적을 찾아 생생하게 관람객들과 나누는게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왜?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군사정권 때를 잘 들여다 보지 않을까.

항일운동 100년을 앞둔 2018년  
우리 아이들과 관람객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생생한 현대사 속의 이야기이다.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 종모 김홍렬 일기장.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너무 더운날!

궁묘의 시간은 멈춘적이 없었다!

해설 또한 일제강점기를 넘어선 이야기 또한 듣기 힘들었다.

궁궐길라잡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 가야할 일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가까운 시간 속에서의  
흔적을 찾아 생생하게 관람객들과 나누는게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왜?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군사정권 때를 잘 들여다 보지 않을까.

항일운동 100년을 앞둔 2018년  
우리 아이들과 관람객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생생한 현대사 속의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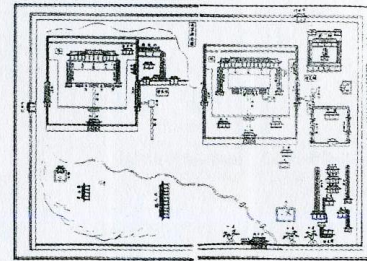
# I. 관람객이 만나는 중요



- 1392 (태조 1) 태조 이성계 조선 건국.  
4대 조상에게 존호를 올림
- 1395 (태조 4) 종묘 창건.  
신실 7칸 좌우 익실 각각 2칸 규모로 정전을 세움
- 1421 (세종 3) 별묘인 영녕전 건립, 신실 6칸 규모
- 1546 (명종 1) 정전 4칸 늘려 총 11칸 규모
- 1592 (선조 25)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 1608 (광해 卽) 정전 11칸 영녕전 10칸 규모로 다시 세움
- 1667 (현종 8) 영녕전 총 12칸으로 늘림
- 1726 (영조 2) 정전 총 15칸으로 늘림
- 1836 (현종 2) 정전 4칸 늘려 총 19칸,  
영녕전 4칸 늘려 총 16칸 규모
- 1995 종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200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 유산결작 선정



# 종묘 宗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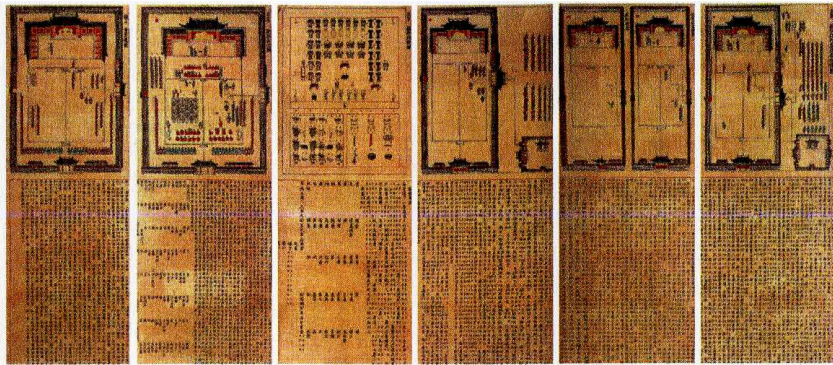


종묘전도 ●

## 조선 왕실의 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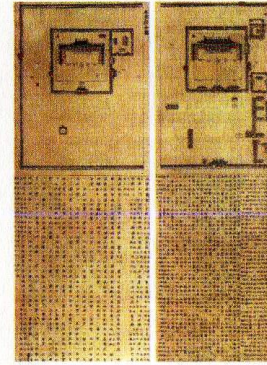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神位)를 모셔 제사 지내는 국가 최고의 사당이다. 왕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의 도읍지에 세워야 했고, 그 위치나 형식 등도 따로 규정한 제도에 의거해 정해야 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종묘는 1395년 조선의 태조가 한양을 새 나라의 도읍으로 정한 후에 지었다. '궁궐의 왼쪽인 동쪽에 종묘를, 오른쪽인 서쪽에 사직단을 두어야 한다'는 유교의 예법을 따라 경복궁의 왼쪽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의 종묘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608년에 중건한 것이다. 건립 후 모시는 신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차례 건물 규모를 늘려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종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정전과 영녕전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정전을 종묘라 하였으나, 현재는 정전과 영녕전을 모두 합쳐 종묘라 부른다. 정전의 신실 19칸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위 49위를, 영녕전의 신실 16칸에는 34위의 신위를 모셨다.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위는 종묘에 모시지 않았지만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숙종 때 명예를 회복한 단종의 신위는 영녕전에 모셨다. 종묘는 제사를 모시는 공간과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나뉜다. 제사를 모시는 공간으로는 정전, 영녕전, 공신당, 칠사당이 있고,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으로는 재궁, 향대청, 악공청, 전사청 등이 있다. 종묘의 모든 건물은 장식과 기교를 절제하여 단조로우 보이지만, 이는 존엄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위한 의도적인 장치이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한국의 종묘는 건물과 더불어 제례와 제례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2001년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등재되었다.



**왜 종묘를 세우는가?** 종묘의 건립은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魂)과 백(魄)으로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형체인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모시는 사당과 백을 묻어 모시는 무덤을 각각 만들어 조상을 숭배하였다. 특히 죽은 조상의 혼이 깃든 신주(神主)를 만들어 제례를 올리며 후손들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조선 왕조와 관련된 책이나 드라마에서 “종묘사직을 보존하고…” 또는 “종사를 어떻게 하려고…”와 같은 표현을 흔히 볼 수 있다. 종사는 종묘와 사직을 합친 말로 조선시대에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다.

**창건 당시 종묘** 태조 이성계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결정한 다음 종묘를 먼저 짓고 궁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을 쌓아 도성을 건설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1394년 10월에 가장 먼저 종묘를 짓기 시작하여 1395년 9월에 완성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종묘를 '대묘(大廟)'라 하였다. 대묘가 완성되자 개경에 봉안되어 있던 태조의 조상 4대의 위패를 새로 지은 종묘로 옮겨 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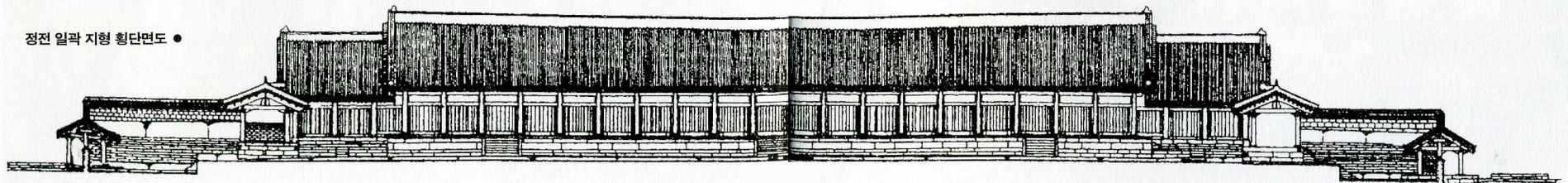
●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

종묘대제(宗廟大祭) 등 종묘에서 치러지는 주요 행사에 대한 그림을 상단에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을 하단에 자세하게 풀어 쓴 병풍이다. 종묘의 각 실에 대한 설명이 철종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 연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종묘 기본 모습의 형성** 종묘는 태종·세종대에 이르러 기본 모습이 정립된다. 태종은 종묘 남쪽에 인공으로 가산(假山)을 조성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야트막한 구릉이 사방으로 종묘를 둘러싸도록 해서 그 안에 신성한 기운이 감돌게 만든 것이다. 또한 제례 때 비와 눈을 막을 수 있도록 건물 양끝에서 직각으로 꺾인 동서 월랑(月廊, 행각)을 만들었다. 그 다음 들레에 담을 두르고 하마비(下馬碑)를 세워 종묘의 격식을 갖추었다. 이것은 중국과 달리 새로 고안한 종묘 건축의 기본 틀로서 '조선의 법'으로 삼았다. 세종 때 영녕전을 새로 건립하여 조선 왕조의 종묘 건축은 종묘와 별묘를 두는 제도로 정비된다.

**종묘의 훼손** 조선시대에는 건물을 지을 때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풍수를 중시했다. 종묘는 응봉자락을 따라 흐르는 산줄기의 지맥이 창덕궁과 창경궁을 거쳐 흘러 들어온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종묘와 창경궁 사이에는 도로가 동서 방향으로 나 있어 도로 위를 지나는 육교를 건너야 창덕궁과 창경궁으로 갈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광화문에서 이화동으로 통하는 도로(현재의 율곡로)를 내어 종묘로 들어오는 지맥을 끊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율곡로를 덮고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복원작업이 시작되어, 이르면 2012년쯤 완공될 예정이다.

정전 일곽 지형 횡단면도 ●



# 1 향대청 일원

香大廳

## 종묘제례를 위한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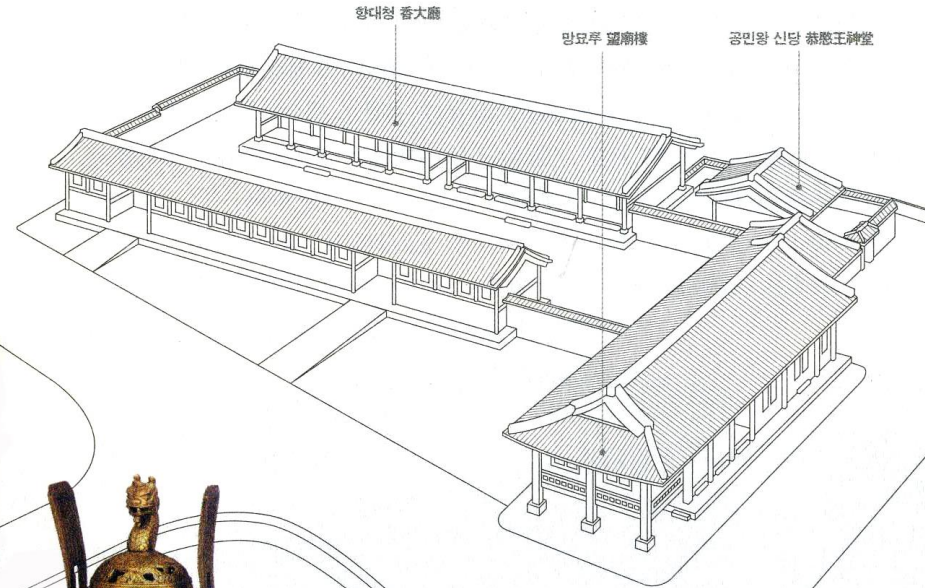
향대청(香大廳)은 향청과 집사청으로 구성된 건물이다. 향청은 제사 전날 왕이 종묘제례에 사용하기 위해 친히 내린 향·축문·폐백과 제사 예물을 보관하는 곳이고, 집사청은 제사에 나갈 집사자들이 대기하면서 재계를 하는 곳이다. 향대청 앞에는 행각이 길게 자리 잡고 있어 두 건물 사이에 남북으로 긴 뜰이 만들어졌다. 향대청 남쪽으로 망묘루(望廟樓)가 있고, 그 뒤쪽에 공민왕 신당이 있다. 뒷마루 앞에는 신발 벗는 섬돌을 길게 설치해 여러 사람이 드나들기 편하게 했다.



**망묘루(望廟樓)** 망묘루는 제례 때 임금이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도서를 보관하고 그림을 걸어 두기도 하였다. 제향 때 왕이 종묘의 정전을 바라보며 선왕과 종묘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규모인데, 연못 방향의 한 칸은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공민왕 신당(恭愍王神堂)** 고려 제31대 공민왕과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정식 이름은 '고려공민왕영정봉안지당(高麗恭愍王影桴奉安之堂)'이다. 조선 왕조 최고의 사당인 종묘에 고려의 왕을 모셨다는 점이 특이하다. 역성혁명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종묘를 창건할 때 공민왕의 영정이 바람에 실려 마당으로 떨어졌는데 조정에서 회의 끝에 그 영정을 봉안키로 하여 공민왕 신당이 건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 향로 · 향함(香爐 · 香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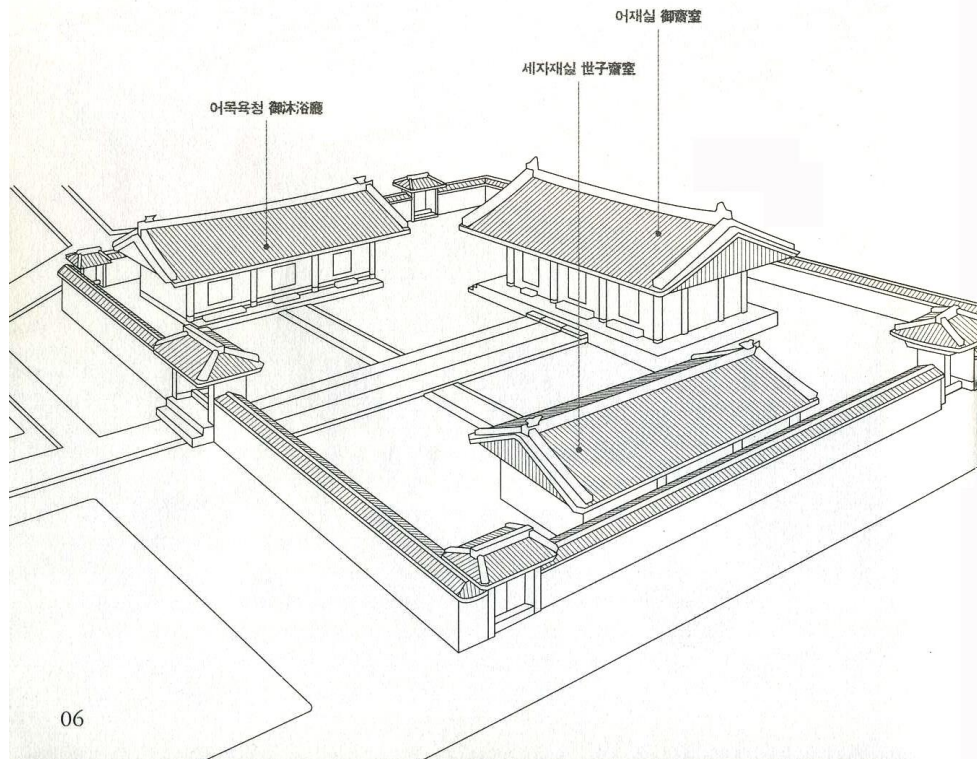
**왕의 장례식** 국장이라 하는 왕의 장례는 국가사업에 비견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과 인력으로 치러졌다. 승하한 왕과 왕비에게는 흰 비단 옷으로 만든 수의를 9겹 입혔다. 소렴(2~3일 내에 하는 염습의 처음 절차)에는 겹옷, 겹이불로 19겹을 입히고 대렴(5일 후에 시신에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서 베로 묶는 절차)에는 무려 90겹의 수의를 입혔다. 왕의 승하 후에는 도성의 성문과 대궐을 군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5일간 장이 열리지 못하며, 3개월까지 혼인과 동물의 도살이 금지된다. 흙에 닿을 때까지 시신이 썩으면 안 되기에 동빙고에 저장해 둔 얼음을 이용하여 일종의 냉동 영안실을 만들어 놓고 5개월의 긴 장례기간 동안 시신을 보관하였다.

## 2 재궁 일원

齋宮

### 제를 위해 심신을 정결히 하던 곳

재궁은 왕이 머물면서 세자와 함께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하던 곳으로, 어재실(御齋室)이라고도 한다. 마당을 중심으로 북쪽에 왕이 머무르는 어재실, 동쪽에 세자가 머무는 세자재실, 서쪽에 어목욕청이 있고, 담으로 둘러져 있다. 왕과 세자는 재궁 정문으로 들어와 머물면서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 서협문으로 나와서 정전과 영녕전의 동문으로 들어가 제례를 올렸다. 정전 신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증축할 때마다 재궁은 동쪽으로 옮겨 다시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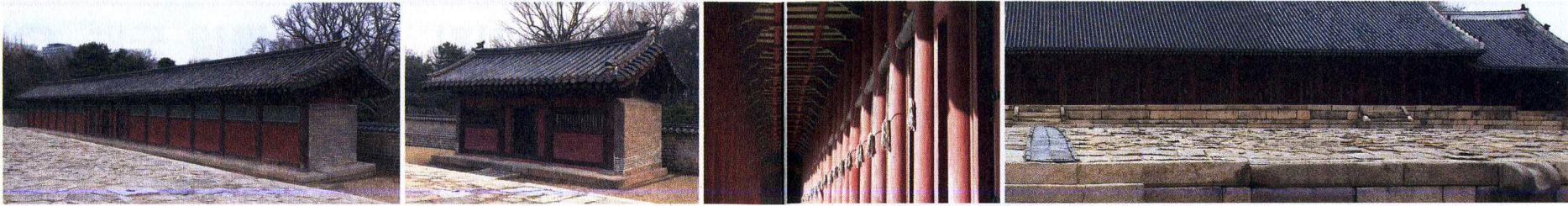
## 3 정전 일원

正殿

### 역대 왕실의 신주를 모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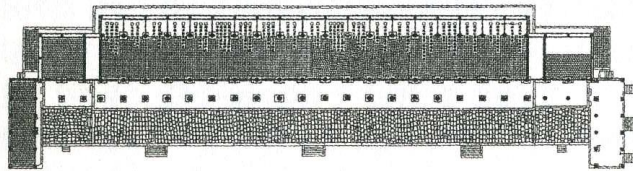
정전은 왕과 왕비의 승하 후 궁궐에서 삼년상을 치른 다음에 그 신주를 옮겨 와 모시는 건물로, 종묘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 정전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세 곳에 있다. 남문은 신문(神門)으로, 혼백이 드나드는 문이다. 동문으로는 제례 때 제관이 출입하고 서문으로는 악공, 춤을 추는 일무원, 종사원이 출입한다. 정전에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재위 중인 왕의 4대 조상, 역대 왕 중에서 특히 공덕이 큰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정전은 내부에 모실 신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옆으로 증축하여 늘렸다. 건물 앞에 있는 가로 109m, 세로 69m나 되는 넓은 월대는 정전의 품위와 장중함을 잘 나타낸다. 월대 가운데에는 신문에서 신실로 통하는 긴 신로가 남북으로 나 있다. 제관과 집례관들은 월대에 도열하여 제례를 행한다. 몸체인 신실의 양쪽에는 창고와 부속실들을 마련했다. 거친 월대 바닥과 위로 육중한 지붕을 떠 받치고 있는 모습은 숭고하고 고전적인 건축미의 극치를 이룬다. 정전은 국보 제227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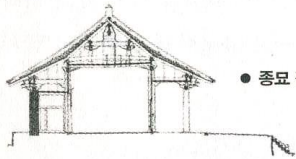


**공신당·칠사당·악공청** 정전의 율대 아래 동쪽에는 공신당(功臣堂)이 있고, 서쪽에는 칠사당(七祀堂)이 있다. 공신당은 정전에 모신 역대 왕들의 공신들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창건할 때는 5칸에 불과하였으나 정전에 모시는 왕의 신위가 늘어남에 따라 배향 공신들의 신위가 늘어나 지금과 같이 83위를 모신 16칸의 긴 건물이 되었다. 칠사당은 토속 신앙과 유교 사상이 합쳐진 사당이다. 왕가와 궁궐의 모든 일과 만백성의 생활이 이무 탈 없이 잘 풀리도록 봄·여름·가을·겨울의 운행과 관계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정전 서남쪽 담장 밖에는 제례악을 준비하는 악공청(樂工廳)이 있다. 악공청은 종묘제례 때 음악을 담당하는 악공들이 악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연습도 하던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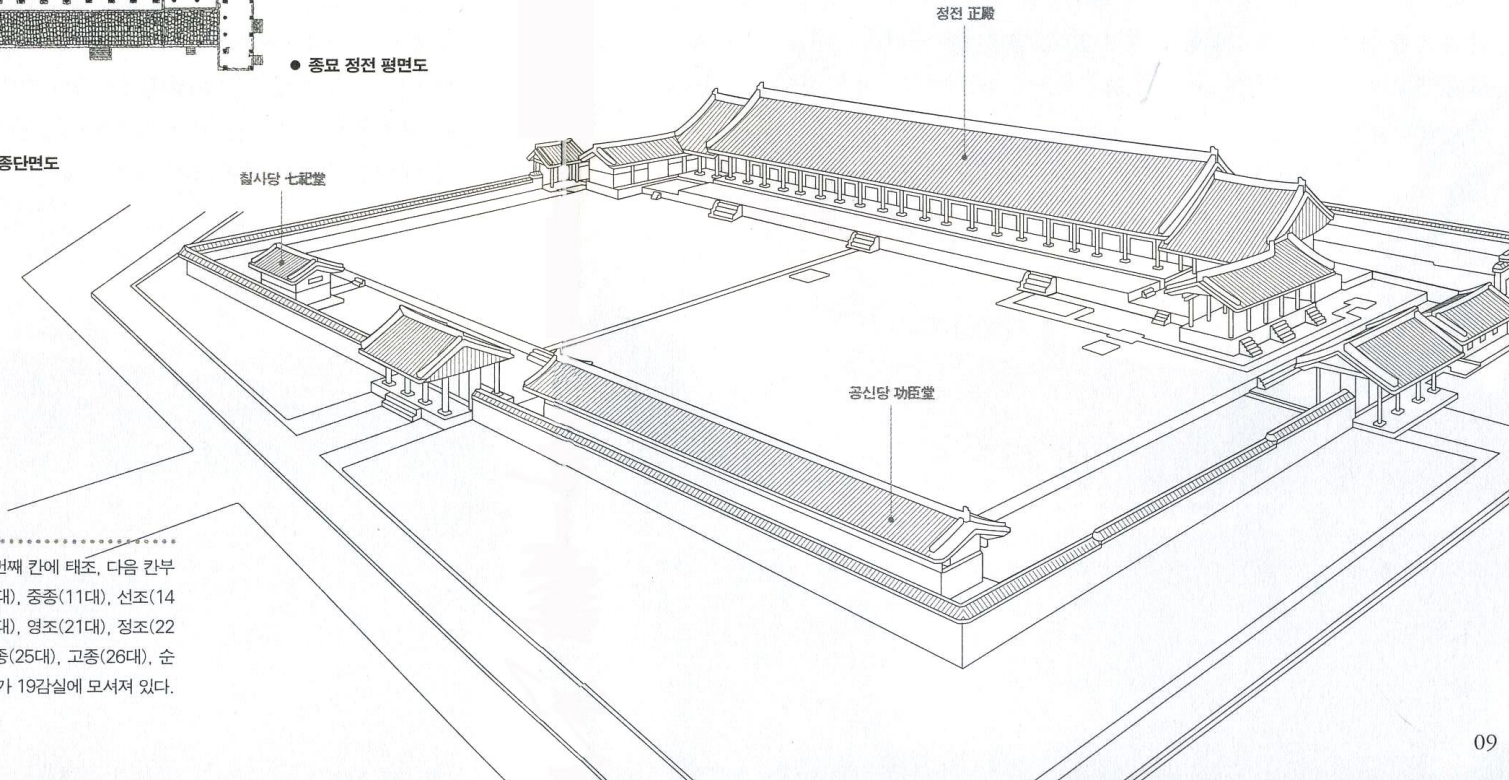
**국난을 예견한 종묘** 종묘는 왕조의 상징이었기에 국난(國難)을 예견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발발 2년 전인 1590년(선조 23)에는 종묘를 지키는 종이었던 이산 일당이 도둑질을 하고 나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른 일이 있었다. 화재는 초기에 진화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선조는 소복 차림을 하고 선왕의 혼령들에게 사과드려야 했다. 또 <선조수정실록>에는 임진왜란 전에 종묘 안에서 도둑들이 유숙하여 배설물이 남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관은 '식자들은 장차 환란이 일어날 조짐임을 알았다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유성룡이 쓴 <기란후사(記亂後事, 전란 후의 일을 적다)>에도 서울에 진입한 일본군이 처음에는 종묘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왜군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자 종묘는 신령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며 지금의 덕수궁인 남별궁(南別宮)으로 옮겨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종묘 정전 평면도



● 종묘 정전 태실 종단면도



**정전 봉안 신위** 현재 정전에는 제1실인 서쪽 첫 번째 칸에 태조, 다음 칸부터 차례로 태종(3대), 세종(4대), 세조(7대), 성종(9대), 중종(11대), 선조(14대), 인조(16대), 효종(17대), 현종(18대), 숙종(19대), 영조(21대), 정조(22대), 순조(23대), 문조(익종, 추존), 현종(24대), 철종(25대), 고종(26대), 순종(27대)과 각 왕의 비(妃)를 합쳐 모두 49위의 신위가 19감실에 모셔져 있다.

# 4 영녕전 일원

永寧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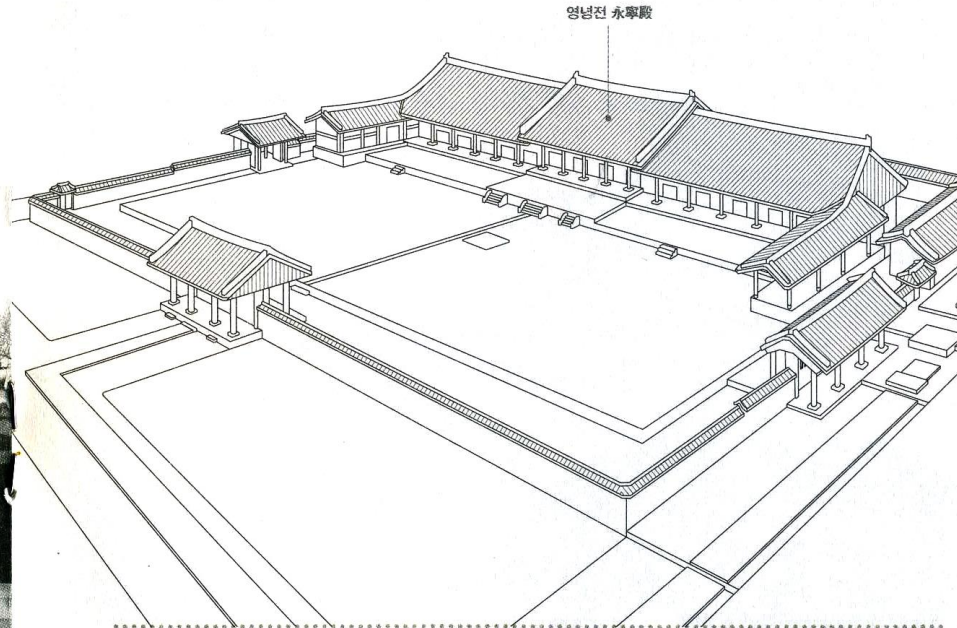
## 왕실 신위를 모신 별묘

1421년(세종 3)에 정종의 신위를 정전에 모시며 정전의 신실이 부족하자 정전에 모시고 있던 신위를 다른 곳에 옮겨 모시기 위해 새로 지은 별묘다. 그 이름은 '왕가의 조상과 자손이 함께 길이 평안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영녕전은 신위를 정전에서 옮겨 왔다는 뜻에서 조묘(祧廟)라고도 한다. 시설과 공간 형식은 정전 일원과 유사하지만 정전보다 규모가 작고 좀 더 친근감 있게 지어졌다. 정전 일원과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된 월대 주위에 담장을 두르고 동·남·서 세 곳에 문을 두었다. 가운데 4칸은 태조의 4대 조상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비를 모신 곳으로 다른 협실보다 지붕이 높다. 좌우의 협실 각각 6칸에는 정전에서 옮겨 왔거나 추존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영녕전은 정전과 같이 세 면을 벽으로 감쌌으며, 내부 공간은 트여 있으나 가운데 4칸과 좌우 협실 사이는 벽을 두어 구분하였다.



**영녕전을 건립하게 된 이유** 조선 초기 종묘에는 정전 한 채만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실이 모자라게 되었다. 천자의 나라인 중국의 종묘에는 7신실에 신위를 모시고 제후의 나라인 조선은 5신실에 신위를 모시게 되어 있었던 당시의 원칙 때문에 함부로 증축할 수도 없었다. 신위를 5신실에 모시는 오묘제(五廟制)는 왕조를 일으킨 태조와 현재 왕의 4대 조상을 모시는 제도다. 논쟁 끝에 중국 송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사당을 하나 더 짓기로 하고 정전 옆에 영녕전을 세웠다.

**영녕전 신위** 영녕전에는 중앙의 각 신실에 태조의 4대 조상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왕비들의 신위를 모셨으며, 서협실(西夾室)에는 정종(2대), 문종(5대), 단종(6대), 덕종(추존), 예종(8대), 인종(12대), 동협실(東夾室)에는 명종(13대), 원종(추존), 경종(20대), 진종(추존), 장조(추존), 영왕과 각 왕의 비(妃)를 합쳐 모두 34위 신위가 16감실에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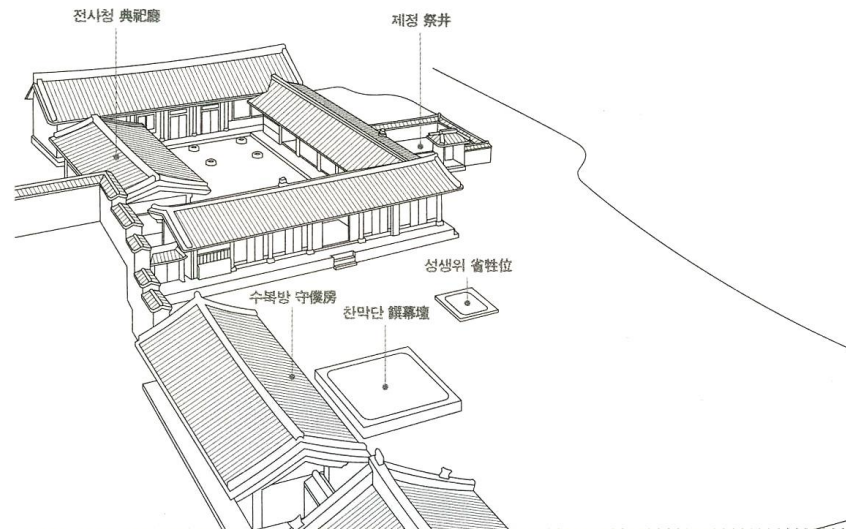
**종묘 신위에 올라가지 못한 왕의 어머니** 왕을 낳은 생모라 할지라도 왕비가 아니면 종묘의 신위에 올라갈 수 없었다. 영조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 숙빈 최씨를 종묘에 모실 수 없어 숙빈모라는 사당을 따로 지었다. 조선 왕조에서 미천한 무수리 출신으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경우는 숙빈 최씨뿐이었다. 영조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각별하였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신분의 벽을 깰 수는 없었다. 더구나 아버지 숙종이 장희빈 사건을 계기로 후궁을 왕비로 올리는 일을 국법으로 엄격히 금지시켰으니, 영조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당에 어머니의 사당을 지어 위로하는 일밖에 없었다.

# 5 전사청 일원

典祀廳

## 제례용 음식을 조리하던 곳

전사청은 제례를 치를 때 음식을 마련하는 곳으로, 평소에는 제사에 사용하는 집기들을 보관하였다. 네모난 마당 둘레에 '口' 자 모양으로 건물이 들어섰고 마당에는 음식을 준비하던 돌절구들이 남아 있다. 1395년(태조 4년)에 종묘를 지을 때 함께 지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8년에 재건했다. 정전 동문 옆의 수복방(守僕房)은 종묘를 지키는 관원들이 사용하던 곳이며, 그 앞에 찬막단(饌幕壇)과 성생위(省牲位)가 있다. 전사청 동쪽에는 제사에 쓰는 우물인 제정(祭井)이 있다. 제정 주위에는 담을 쌓아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찬막단(饌幕壇)과 성생위(省牲位)** 찬막단은 제사에 바칠 음식을 미리 검사하는 단이다. 종묘제례에는 날음식을 올렸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했기 때문에 찬막을 치고 휘장을 둘러 청결하게 하였다. 성생위는 제물(祭物)인 소·양·돼지를 검사하는 곳으로, 제물로 올려도 좋다는 판정이 난 후에야 잡아서 썼다. 종묘 제사에는 왼쪽 표(어깨 뒤 넓적다리 앞 살)에서 오른쪽 우(어깨쪽지 앞 살)로 관통한 상살(上殺)만 올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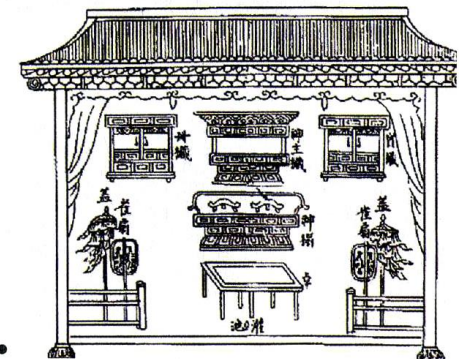
# 신실

神室

##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한 곳

정전과 영녕전 내부 북쪽 벽에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신실(神室)이 있다. 신실은 감실(龕室)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종묘는 같은 건물 안에 신실을 따로 두어 각 신실마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동당이실(同堂異室)로 되어 있다. 각 신실 주위에는 사방과 천장에 황색의 휘장을 둘러쳤으며, 전면에는 따로 황색의 휘장을 쳐서 마치 생전의 침상과 같이 꾸몄다. 각 신실 사이에는 발을 내려뜨려 구획을 나누었다. 신실 앞에는 주렴(珠簾, 구슬로 만든 발)을 내렸으며, 신실 위에는 집 모형의 단집을 설치하고 구름과 연꽃을 조각하여 천상의 세계를 나타냈다. 밤나무로 만든 신주는 각 신실 중앙 뒤쪽의 신주장(神主幟)에 모셨는데, 왕의 신주는 신실 서쪽에, 왕비는 동쪽에 모셨다.

신실의 구성 ●



# 내 손안의 종묘

JONGMYO SHRINE IN MY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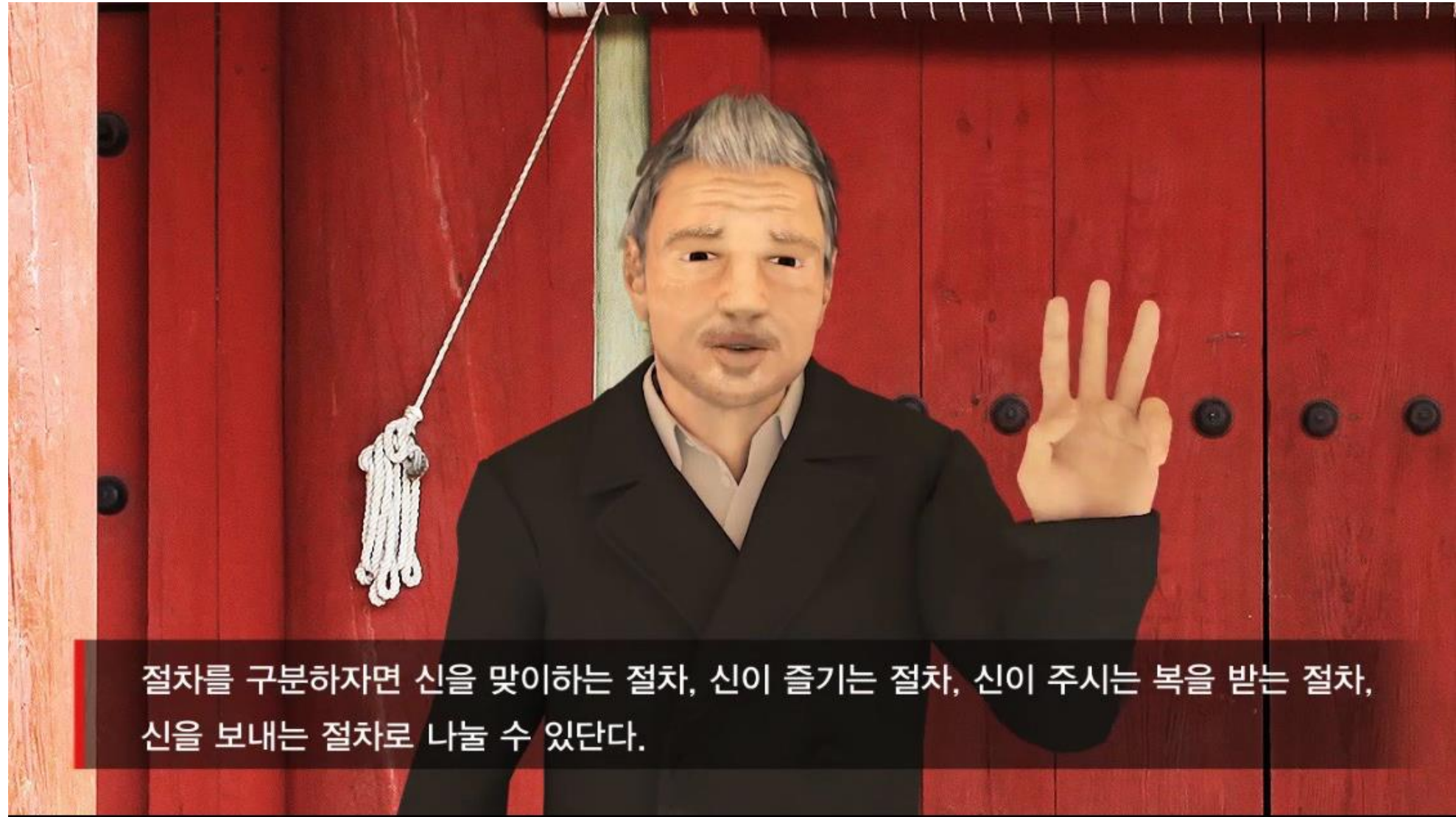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OPYRIGHT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 내 손안의 종묘



절차를 구분하자면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는 절차, 신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절차, 신을 보내는 절차로 나눌 수 있다.



현재[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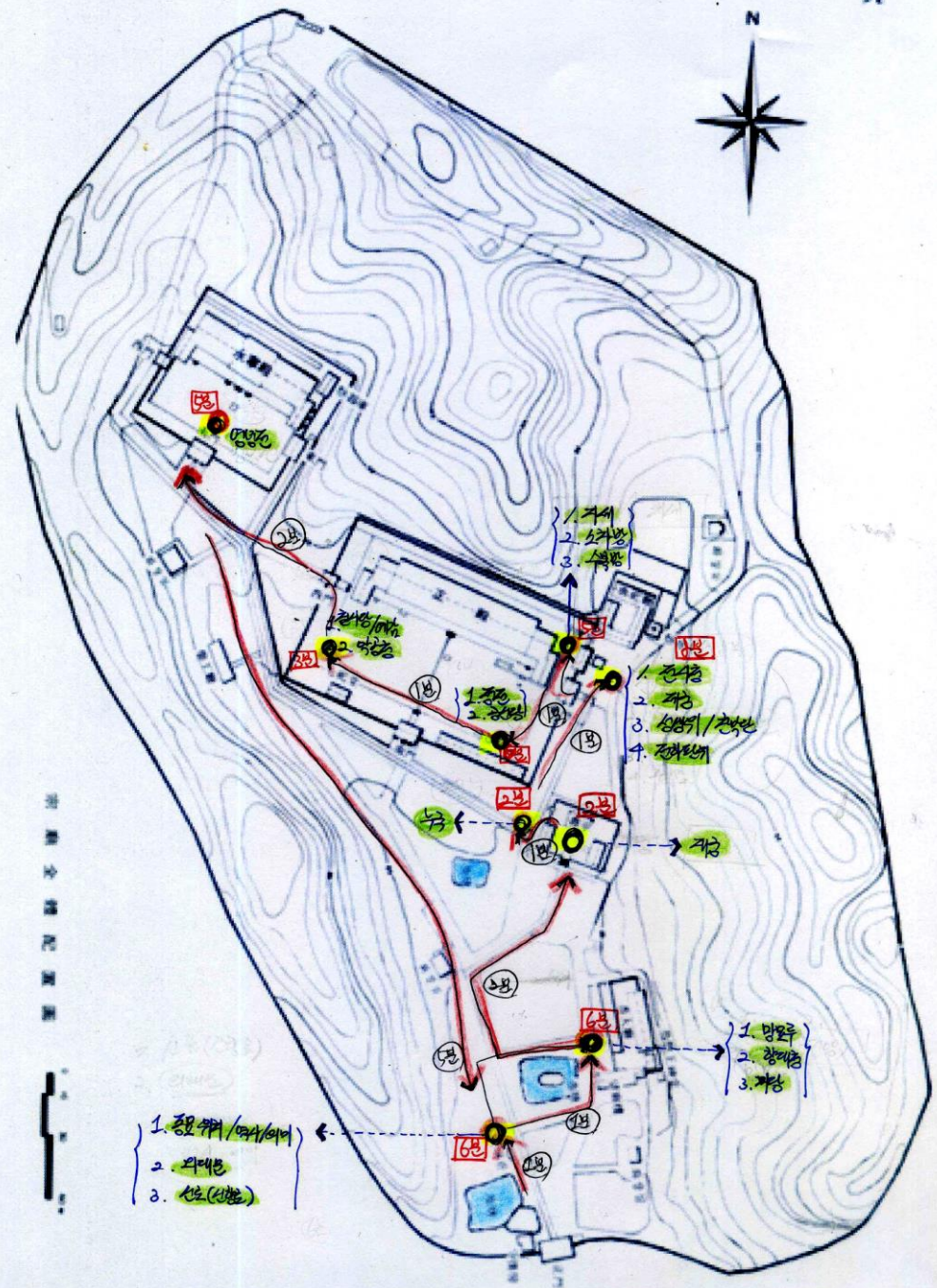


과거[여성]

특pecially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팔일무를 이전 여성이 추던 춤에서 남성들의 춤으로 복원하였다

## II. 해설사가 말하는 중요













**Q.** 선생님들께서는 종묘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or** 어떤 것에 더욱 중점(비중을) 두고 계신지요?

## Q. 과연, 종묘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 사도세자가 영녕전에 모셔진 이유 - 영친왕이 왜 영녕전에 모셔졌나 - 정전에 19분 말고 나머지는 어디에
- 차일고리 - 연산군, 광해군은 어디에 모시나? - 용마루 시멘트칠인가? - 소, 양, 돼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 제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 지당의 '당'자 한자는? - 6.25 때 피해는 어느정도? - 8일무, 6일무
- 공민왕 신당은 왜 있나 - 종묘제례악 순서 - 증축을 어떻게 했는지 - 제사(밤) 지낼 때 불(조명)은?
- 추존왕 - 왕릉의 예감이 종묘에 있는지 - 전사청에서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옮기는가
- 광해군, 연산군은 살아있을 때 종묘제례 안했나 - 칠사당의 신 - 일제시대에도 제례를 지냈었나
- 종묘 건물의 배치 방향 - 이방자 여사도 영녕전에 있나?



페이지

메시지

알림

인사이트

게시 도구

설정

고객 센터 ▾



Cover Photo

# 우리 문화유산 거닐기

작가



행동 유도 추가

좋아요 ▾

메시지 ▾



타임라인

정보

사진

좋아요

더 보기 ▾

홍보하기 ▾

이번 주

634

게시물 도달

58

게시물 참여

0

웹사이트 클릭

최근

2015년

2014년

2013년



## 세계유산, 종묘

1. **종묘 제례복식 체험행사**  
- 4.27(수) 09:30~15:30 / 종묘 향대청
2. **종묘 강연프로그램**  
- 4.27(수)~5.1(일) / 인문학 강좌
3. **종묘 대제**  
- 5.1(일) / 종묘 정전 및 영녕전
4. **종묘 제례악 야간공연**  
- 5.2(월)~5.4(수) / 종묘 정전
5. **종묘 묘현례**  
- 5.5(목)~5.7(토) / 종묘 정전
6. **이야기가 있는 종묘제례악**  
- 5.14(토), 5.21(토) / 종묘 재궁, 영녕전
7. **종묘대제 제수진설 체험행사**  
- 5.21(토) / 종묘 재궁 및 전사청





우리 문화유산 거닐기

세계문화유산 중요 무로 초청 감사

2014. 11. 15 am 10:00



### III. 연구자가 찾아본 종묘



(1) 문화경관 변화로 실려본 ‘조선시대 종묘’

---

(2) 수리 보존으로 변화된 ‘조선시대 종묘’

---

(3) 의례 변화로 실려본 ‘조선시대 종묘’



## <태종~선조> 종묘 변화를 살펴보려...

태조(이성계)는 한양을 도읍으로 삼고 종묘(태묘, 대묘) 서울 터를 정하고, 태조 3년(1394년) 12월에 지신제를 지냈음. 이듬해 9월 완공된 대묘는 총 7칸 신실을 가진 구조였음. 좌우 익실 2칸, 동문과 서문을 만들고 주변에 담장을 쌓았음

- 태종 7년(1407) 종묘 남쪽에 조산 하였음
- 9년(1409) 종묘 남쪽에 가산을 더 증축하였음
- 10년(1410) 공신당을 정전 동쪽 월대 아래로 옮겨 지었음
- 14년(1414) 종묘 담장을 쌓았음
- 17년(1417) 종묘 북쪽 담장에 창덕궁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을 두게함
- 세종 3년(1421) 종묘 서편에 영녕전을 준공하였음
- 25년(1443) 종묘 지당을 조성하였음
- 중종 11년(1516) 종묘 주변의 민가들을 철거하고 담장과 사이 간격을 두었음
- 선조 25년(1592) 종묘가 적에 의해 불에 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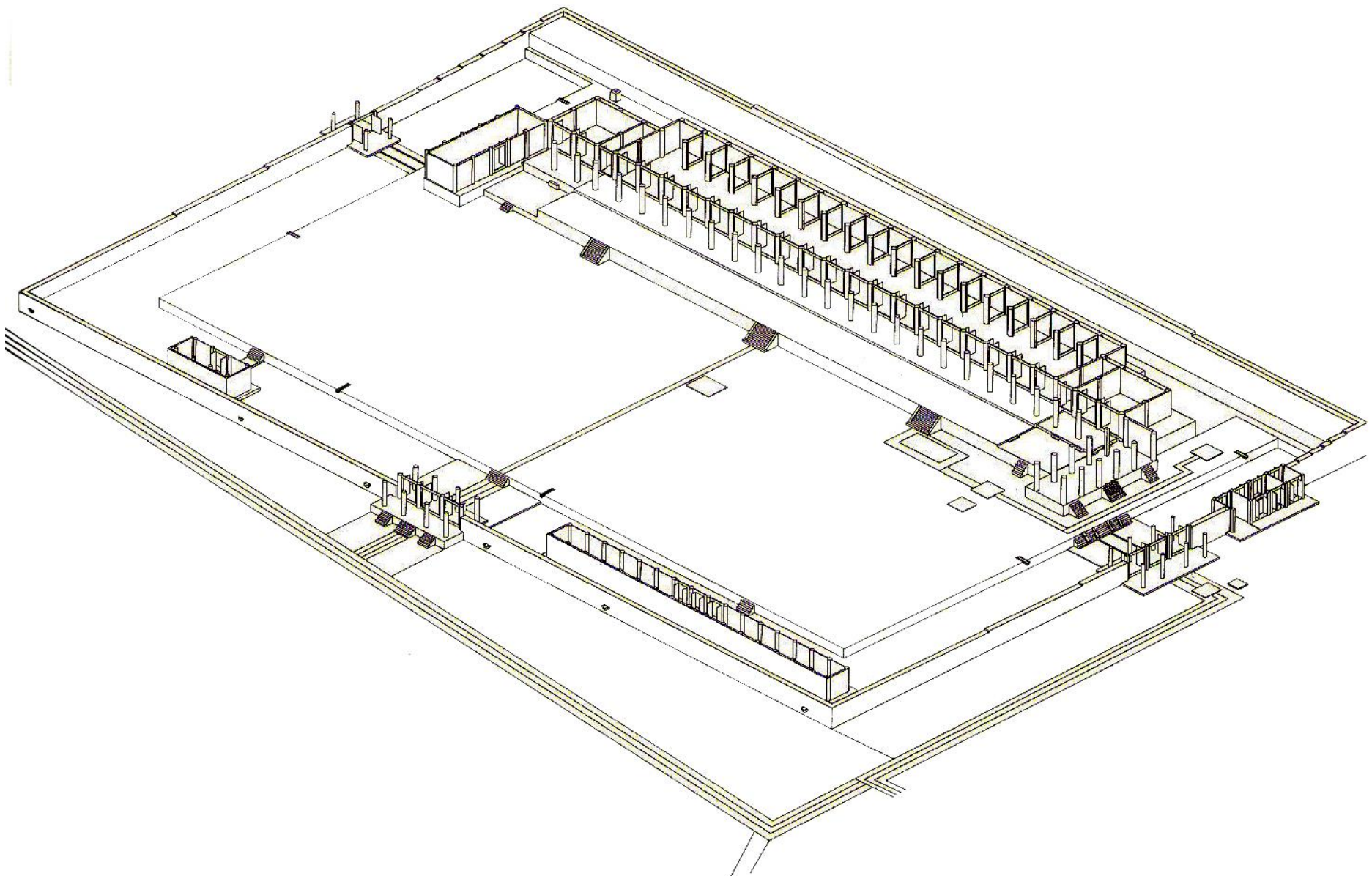












◎宗廟署在 宗廟垣內東國初初建掌守衛 痕廟

謹案 宗廟大明外路傍今有遺置之四磬石即舊  
 之日晷臺石也輿地勝覽云憲政橋在皇宮街之東  
 有仰釜日晷臺全致銘曰凡所設施莫大是也夜有  
 更漏畫難知也鑄銅為器形似釜也徑設圓車于對  
 午也晷隨切回照芥然也畫度於內半周天也圖畫  
 神身為憑候也刻介昭夕透日明也置于路傍觀者  
 聚也自今伊始民知作也此日晷之制令雖無聞而  
 其石臺宛在也本署有守僕三十名

문화재명	사업명	시행청	보수기간
종묘 정전 서측실	종묘 정전 서측실 보수공사	문화재청	1999.11.16~2000.12.07
종묘 망묘루	종묘 망묘루 복원·보수 및 가설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문화재청	2000.04.25~2000.12.10
종묘 향대청	종묘 향대청 보수공사	문화재청	2004.09.02~2004.12.28



# 태종

태종 10년 5월 13일 종묘의 동·서상과 공신 배향전을 지을 때의 여부를 의논케 하다

태종 11년 10월 3일 임금이 친히 종묘에 향사하다

태종 12년 10월 7일 하루 전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가다

태종 13년 1월 21일 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제사에 희생을 쓰는 제도를 상정하다

태종 13년 1월 21일 종묘 및 궐문의 입구에 표말을 세우다

태종 14년 4월 28일 종묘의 둘레 담장을 쌓다

태종 16년 1월 9일 재궁으로 나가다. 종묘에 지름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다

태종 16년 7월 27일 종묘의 제기고와 재생방을 짓다

태종 17년 1월 9일 종묘의 북장에 작은 문을 만들어 창덕궁과 통하게 하다

# 세종

세종 3년 8월 3일 종묘 확장을 상왕과 상의하다

세종 3년 8월 5일 예조가 중국 전례에 비추어 종묘의 규모에 대해 올린 상소문

세종 6년 1월 20일 여우가 종묘의 북쪽 재에서 울다

세종 10년 1월 24일 종묘 제향 시에 무례한 행위를 한 박서생, 안진을 처벌하게 하다

세종 13년 4월 3일 대언·종친·의정부·육조 2품 이상이 문안드리다  
민호와 종묘의 화재예방책에 관해 논의하다

세종 14년 1월 21일 상호군 박연이 종묘 공신당의 이설을 주청하다

세종 16년 10월 2일 처음으로 양부일구를 혜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일영을 관측하다

세종 18년 8월 17일 종묘서 녹사 1인을 더 설치하다

## 성종

- 성종 2년 3월 5일 종묘서의 관원이 제기를 도둑질 당하였으므로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다
- 성종 2년 6월 16일 예조에서 환조를 영녕전으로 이안할 것을 청하다
- 성종 5년 8월 3일 성봉조의 말에 따라 경복궁 수리를 정지하고 먼저 종묘를 수리하게 하다
- 성종 6년 1월 1일 예조의 청에 따라 종묘의 영녕전을 수리하도록 하다
- 성종 20년 6월 19일 종묘 담장을 수축하다
- 성종 20년 6월 25일 승정원에 종묘 담장 쌓는 일을 직접 살피겠다고 이르다
- 성종 20년 6월 26일 종묘의 부역에서 맹인과 독신녀는 감해 주도록 하다
- 성종 20년 6월 29일 종묘의 담장을 개축하는 일을 다음해로 연기하다
- 성종 20년 7월 1일 사헌부에서 종묘 주변의 백성의 집 철거 등을 중지할 것에 대해 상소하다
- 성종 23년 10월 27일 장령 유인호가 인가의 철거 불가를 아뢰다

## 연산

- 연산 10년 4월 13일 종묘에 담을 고르게 쌓게 하다
- 연산 11년 6월 18일 종묘에서 화포를 쏘아 재앙을 쫓게 하다
- 연산 12년 8월 16일 종묘에 배향된 공신들을 따로 모셔 제사 지내게 하다

## 중종

- 중종 6년 5월 8일 종묘 담장 밖에 화재가 나다
- 중종 6년 5월 10일 종묘 담 밖 민가에 대해 전교하다
- 중종 6년 5월 10일 정부가 종묘 밖 화재의 일로 아뢰고 왜인에 대해 별계하니 따르다
- 중종 11년 9월 23일 종묘 담장에 잇대어 지은 인가를 철거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 중종 11년 10월 7일 공조 판서 유담년이 종묘 담장 밖 13척 이내 인가를 철거하도록 청하다
- 중종 33년 6월 21일 종묘의 공신당 망새에 벼락이 떨어지다

## 명종

- 명종 1년 9월 30일 종묘를 개수할 때 이안·환안한 집사들을 서계하게 하다
- 명종 1년 10월 4일 종묘를 개수할 때 이안과 환안에 참가 집사들에게 차등하여 논상하다
- 명종 1년 10월 9일 사간원이 종묘 개수때 이안·환안에 참여한 자들 중가의 부당함을 아뢰다
- 명종 4년 7월 30일 풍재로 종묘의 나무가 피해를 입다
- 명종 22년 2월 23일 종묘 제조가 숙직 수복의 급사에 대해 아뢰다
- 명종 22년 2월 23일 예조가 숙직하다 죽은 관원을 위안하는 의식에 대해서 아뢰다
- 명종 22년 2월 23일 영의정이 죽은 수복을 위해 관리를 보내 행제할 것을 의논드리다

## 선조

선조 29년 2월 8일 종묘 수조 도감에서 산릉이 파괴된 곳의 보토(補土)를 건의하다

선조 29년 2월 12일 종묘 수조 도감에서 종묘 뒤 산맥이 파인 곳의 흙을 메우는 방법을 건의하다

선조 29년 2월 27일

사헌부에서 상산군 박충간이 사치하니 종묘 수조 도감 당상에서 체차하도록 청하다

선조 29년 3월 2일

종묘 수조 도감에서 종묘의 옛터에서 소나무·대 조각 등이 나와 이상하다고 보고하다

선조 29년 3월 28일

종묘 수조 도감에서 정전 뒷 뜰을 파내어 상목주(桑木主)를 찾도록 건의하다

선조 36년 6월 8일 종묘의 담장이 무너지다

선조 37년 10월 7일 예조가 종묘를 건립할 계획을 세울 것을 아뢰다

선조 39년 5월 27일 종묘 궁궐 영건 도감이 담당 인원을 증가해줄 것을 요청하다

선조 25년 5월 1일 적이 종묘를 불태우다

**(!) 함께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 다시 함께 공부해 볼 기회가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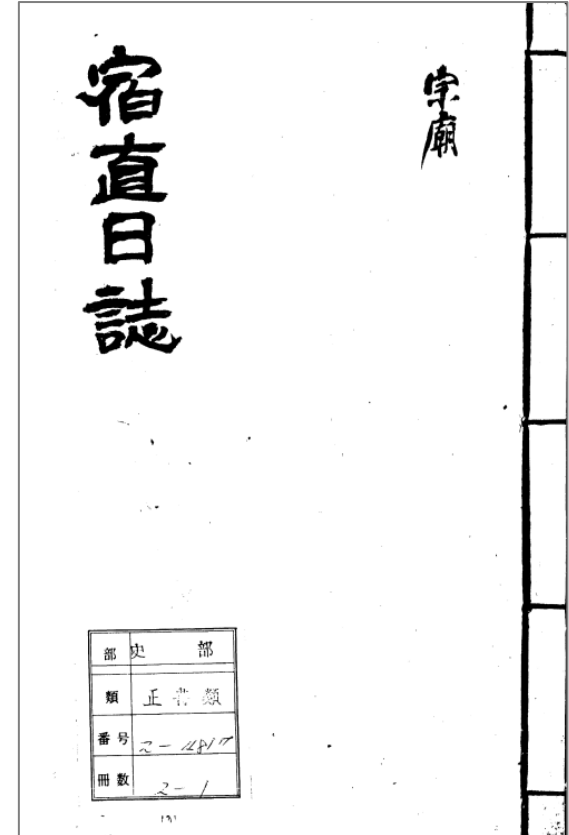


**폭군연산(1962)**

(^^) 일제강점기, 종묘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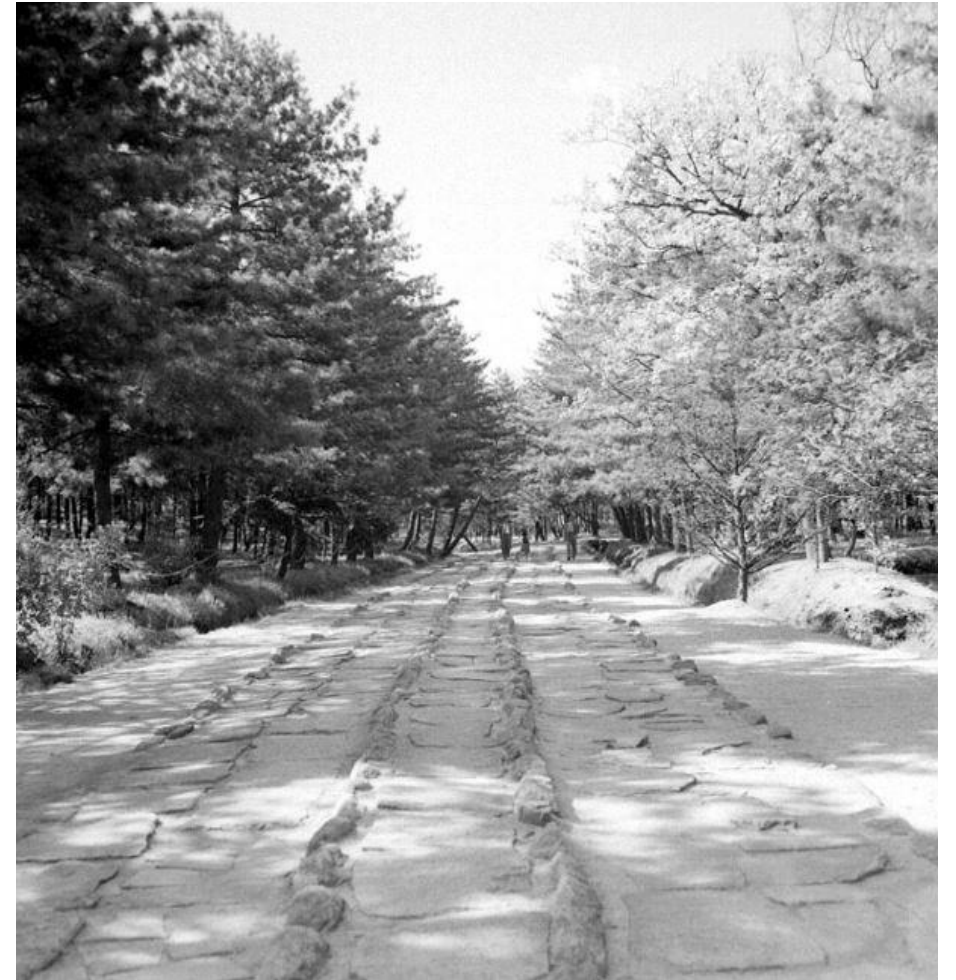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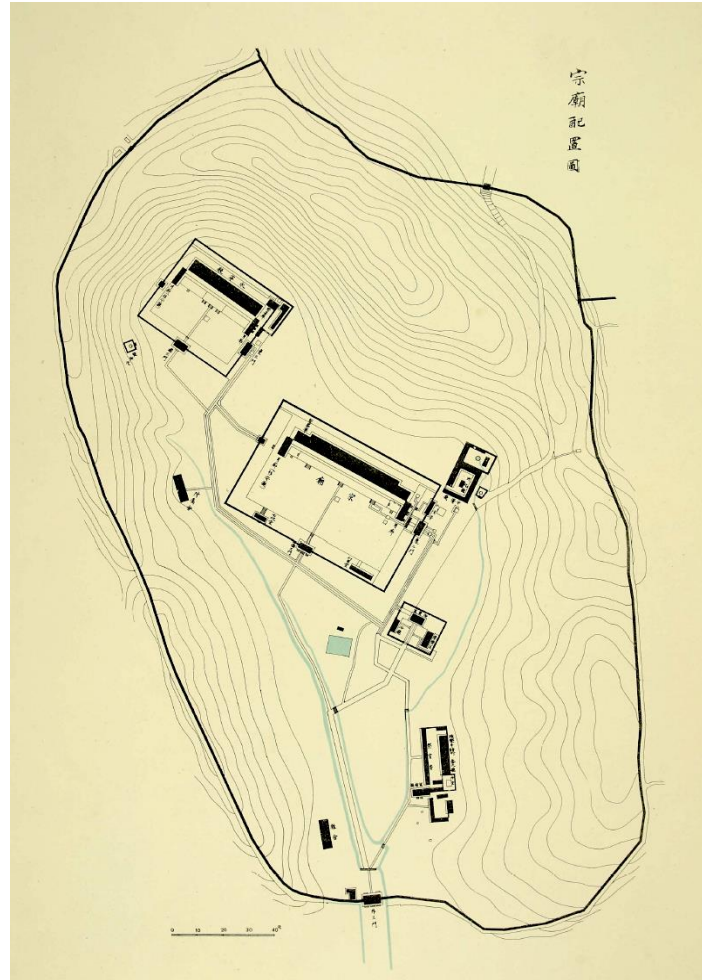


종묘일지(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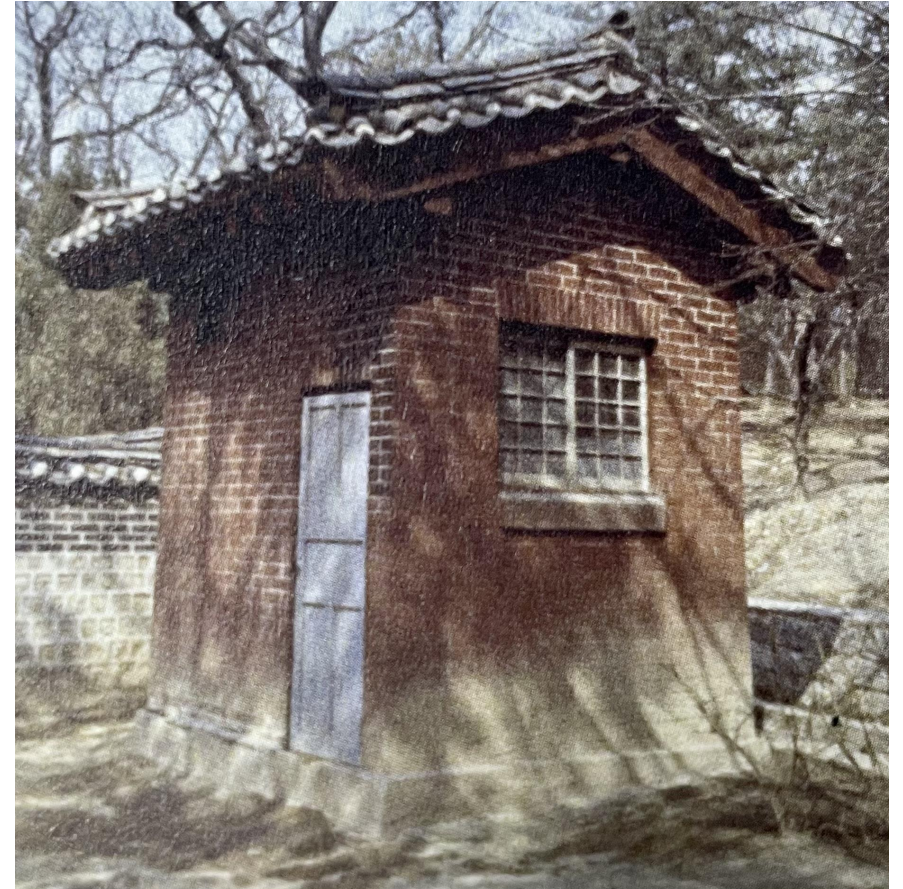


숙직일지(1940)

**(^^)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종묘의 공간변화도 상당한 것으로..**



(^^) 여기는 종묘 어디일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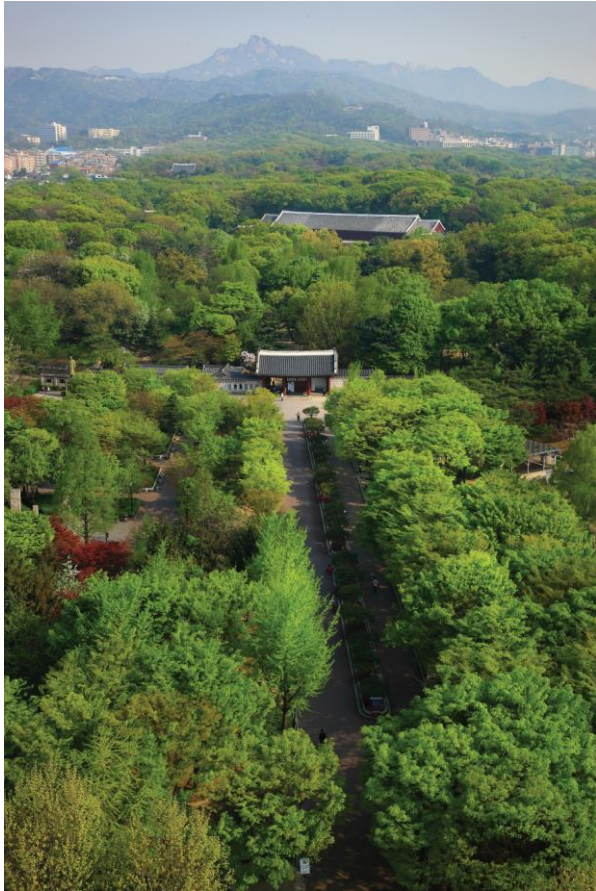




1995년 12월 8일 '세계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고,  
당해 12월 19일 종묘 고유제를 올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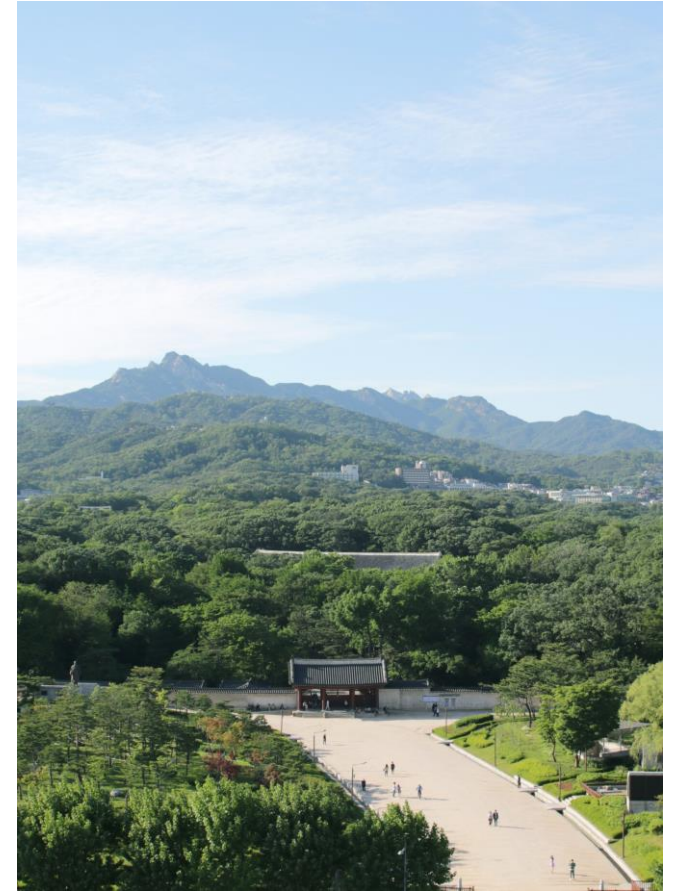
국제문화재-유적지연구협의회(이코모스)  
: 영국 런던대학교 고건축분야전문가  
실바 교수는 1995년 2월 10일 종묘를  
1시간 둘러본 후 베를린에서 열릴  
제19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정 건의  
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 등재기준(4)

-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적, 기술적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



세계유산 종묘  
또 만납시다!!!

